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梁京柱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朴炳春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사

제 512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4년 10월 26일 수요일

1

최첨단 외국어교육관 지난 19일 개관 8개 외국어 교육실·음향도서실 등 시설 갖춰 내년 신학기부터 이용... 40억 투입 국제회의장 건립예정

약 4년만에 완공된 외국어교육관 개관식이 지난 10월19일 오전 11시 고장권총장, 양우진외국어교육관장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관 제작식 △개관테이프 절단식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1990년 9월에 착공해 약 4년동안의 공기를 거쳐 지난 10월19일 개관한 외국어교육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천5백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이다.

국내최고의 외국어교육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학교의 외국어교육관은 오는 11월부터 예산을 투입, 영어, 독어, 일어 등 8개 외국어교육실을 완공시켜 1995학년도 신학기부터 각종 외국어강의를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며, 1996년도에는 사운드 라이브러리(sound library), 영화실 등 내부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외국어교육관은 앞으로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에 대한 연구 및 자료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정보교류 △외국어학과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및 교양 외국어 교육 △취업, 진학, 외국유학 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교직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 △교사의 재교육 및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외국어 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장 운영, 각종 세미나 및 회의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어교육관 부대시설을 보면 △지하층=대피소, 기계실 △1층=외국어교육실(64석 4개실, 54석



◇ 지난 19일 개관식에서 고장권총장·양우진 외국어교육관장 등 관계자들이 개관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1개실), 안내실, 숙직실 △2층=사운드 라이브러리(48석 2개실), 사운드대여실, 외국어교육실(64석 2개실), 영사실(30석1개실), 행정실, 조정실 △3층=교수연구실(4개실), 자료보관실 및 어학기자재실, 컴퓨터실, 제점실, 전용외국어교육실(20석 2개실), 소회의실, 관장실이 배치되어 있다.

각 실의 기능을 살펴보면 △외국어교육실=최첨단 음향시스템 장치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비디오, 이동식 영화막을 사용한 외국어 교육 △사운드라이브러리=개인용 소형비디오 96개 설치, 개인 외국어 자습실로 사용 △영사실=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설치, 소형·중형·대형스크린 장치, 영화 상영, 학과와 전공 시청각 교육 △

원탁전용 외국어실=외국어학과 대학원 강의실로 사용, 최첨단 음향시스템을 설치 △해외정보 자료실=외국의 각종 정보자료 보관실 △컴퓨터실 및 제점실=외국어교육관 전체컴퓨터 중앙통제센터를 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TV와 영상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 인공위성 수신안테나를 설치하고 인공위성 및 공청설비를 해 외국어교육관 전 강의실과 연결되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국어교육관에서는 이번 개관한 신축건물외에 앞으로 2차 공사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동시통역시설을 갖춘 6백석 규모)과 시청각 교육실을 갖춘 건물을 별도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어교육관 내부시설이 완비되는대로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착공할 계획인 국제회의장은 △1층=컴퓨터교육실(60석 2개실), 컴퓨터제점실, 시청각교육실(60석 3개실), △2층=외국정보자료실(2개실), 세미나실(2개실), 소회의장, 대기실 △3층=국제회의장, 준비실 등을 갖추게 된다.

외국어교육관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양우진관장은 "현재 28개 국립대학중 외국어교육관 건물이 독립된 학교는 우리학교뿐이며 세계 어느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국내최고의 외국어교육관이어서 다른 대학교에서도 관심이 상 당하다. 따라서 외국어교육관이 도민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학생들에 대한 미래교육기관으로 기능을 다

10·11월중 학사일정

△10월 24~29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교육대학원) △11월 1~7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대학원) △7일: 2학기 수업주수 3분의2 선 △7~19일: 9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10~17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2차공개발표(대학원) △24일: 95학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할 수 있도록 만반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기내로 외국대학교와의 연구협정을 체결하고 가급적이면 내년에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학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외국어교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학교측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어교육관의 신설과정을 보면 지난 1987년 11월27일 인문대학(당시 학장 양우진교수)에서 외국어교육관설립 필요성 및 계획을 발표 △인문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외국어교육관 및 국제회의장 설치 추진(1988. 1. 8) △학처장 회의에서 설치 결의(1989. 4)에 이어 △외국어교육관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양우진 교수)가 구성(1989. 12. 27), 관계기관에 협조를 부탁 △교육부에서 외국어교육관 설립을 인가, 1990년 9월에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1991년 3월1일 국립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13322호) 제11조 1항 6호에 의해 외국어교육관을 법정기구로 인가 받았으며 △1993년 4월10일 제주대학교 학칙 시행 세칙 제4조 14호의 삭제에 따라 어학연구소가 폐소되고 어학연구소 시설물을 외국어교육관으로 이관하게 됐다.

현재 28개 국립대학 중 법정기구로 인가받은 대학은 우리학교를 포함 서울대, 충남대, 전남대 4개 학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저 내렸고 동시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하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신뢰가 있기가 하라만은)도 '와르르' 무너졌다.

또 무엇이 와르르 무너질 것인가? 김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 각종 사고와 관련된 부정부패 먹이사슬을 완전히 절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넋을 위로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찾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창]

주체사상 찬양 혐의로 학우 5명 구속 제총협, '정확한 혐의사실 밝힐 것' 촉구



◇ 총학생회에서는 국보법위반혐의로 24일 구속된 5명의 학우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적단체구성혐의 등으로 우리 대학 학우 5명이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수감됨에 따라 총학생회 및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항의와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새로운'이란 지하조작을 결성, 김일성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조직을 확대하려했다는 이유로 고창덕(농학4), 홍성우(무예 4), 김병세(해양 4), 이미영(식영 3), 고동완(정보공 2) 등 5명의 학우를 구속하고 양중호(국 2)학우를 불구속입건 하는 한편 2명의 학우를 수배하고 우리대학 휴학생 현역군인 3명을 긴급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주사파조직이 우리 대학내에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계속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새벽까지 이들 혐의학생들의 집을

검찰발표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주사파조직이 우리 대학내에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계속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새벽까지 이들 혐의학생들의 집을

검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검거하면서 입수한 김일성 총서형서 2점, 김일성 사진과 신년사, 기관지 『봉화』,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유인물 5백여점과 컴퓨터디스크, 불온서적 50여권 등의 증거물을 25일 보안수사대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와관련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공동대표 고상호)에서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북미 핵공방이 평화적이고 상호존중으로 타결되고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탈냉전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에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민

주체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경찰은 불법연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정확한 혐의사실을 밝히는 한편 혐의가 없는 학생이라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백두관 1층 로비에서 '우리학교 불법강제연행 비판과 남북화해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청년이라 결의대회'를 가졌다.

2백여명의 학우들이 참가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학우들은 "이 땅에 필요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시청에서 광안로터리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구속학우 석방을 요구했다.

시가행진과정에서 총학생회는 경찰측에 구속된 학우들의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구속된 학우중 3명의 부모들에 대해서만 10여분동안 면회가 허용됐다.

26일 제총협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UR조기 비준 반대 재협상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재 50여권 등의 증거물을 25일 보안수사대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제총협에서는 학우들의 구속과 관련해 오는 29일 시내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돌하르방

'다리'만이 문제 아니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

이 이상아래한 문구는 올들어 공사현장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는 각오로 들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는 그저 그렇게 모래성 쌓듯 허술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압입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고 휴식

을 취하기 위한 집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직장도, 심지어 잠시 물건을 사러 들어간 가게조차도 언제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르는 건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섬뜩한 고백인 것이다.

마치 이런 사실을 뒷받침이나 하듯 멀쩡하던(?) 다리가 붕괴돼 아무런 의심없이 다리를 지나던 각종 차량들이 한강으로 곤두박질해 32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21세기 문명에서의 사건이라 믿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했다.

일이 터지자 성수대교의 시공을 맡은 동아건설측은 하자보수기간인 5년이 지난뒤에 일어난 일이므로 책임이 없다 하고, 정부·여당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과 서울시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리 안전문제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표현이 이번 사건에서 발을 빼려는 것 같아 역겹기까지 하다.

사람들이 예상하듯 이번 사고로 문턱해임된 서울시장은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깊이 사과드린다 하고 이영덕 국무총리의

사표제출·반려등 민심수습을 위한 각종 정치적 소동이 일간지 지면을 가득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고들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모방중국에서는 붕괴된 다리에 대해 몇차례 수증모습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보도한 바 있고, 얼마전 국정감사에서도 다리 안전성이 지적당한 바 있었지만, 지금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서울시는 아주 당당하게 성수대교의 안전성을 담담했었다. 그의 확신에 찬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무

교수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대 학	학 과	채용분야	채용인원
인 문	중어중문	中國語 文法	1
		中文學(詩分野 除外)	1
법 정	법	商法 및 知的所有權法	1
		財務管理	1
경 상	관공경영	觀光事業論	1
		(觀光日語會話 講義可憐한 者)	
사 범	국어교육	時調 歌辭論	1
		經濟地理學	1
농 과	수 의	(環境 및 地理教育 講義可憐한 者)	
		獸醫寄生蟲學	1
해양과학	어 업	漁撈學	1
		無脊椎動物養殖學	1
자연과학	수 학	(生理學 講義可憐한 者)	
		海洋有機化學	1
공 과	화 학공	微分幾何學	1
		函數解析學	1
공 과	건축공	計測 및 디지털工學	1
		(Instrumentation and Digital Engineering)	
공 과	건축공	有機工業化學	1
		建築設計	1
공 과	건축공	建築設備 및 環境	1
계	15	18개 분야	18

2. 응모자격: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95년 2월이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명함판사진첨부, 우측상단에 지원학과·전공분야 및 연락처 가능한 전화 번호·FAX 번호 명기) -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1부.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전경력) - 1부.
라. 연구실적목록(제목, 연구자, 발표년월일, 발표지 및 논문개요 기재 - 국문으로 작성) - 1부.
마. 연구실적물: ① 최종학위논문(석사 100%, 박사 200%) - 각 1부.
② 응모서류 마감일 현재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 100% 이상 - 별책본 각 3부

바.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국문번역문과 함께 필히 제출

4. 서류접수기간: 1994년 11월 10일(木) 17: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우편접수인 경우 17:00까지 도착분만 한함).

5. 서류접수처: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6. 결 과 통 지: 본고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함.

7. 기 타

가. 국내 타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는 채용예정자로 결정되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없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나. 서류제출시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각종 자격증은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본 대학에서 원본과 대조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격증이나 경력(학위)증명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본고 교무처 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4) 54-2012, 55-6204, FAX(064) 55-6130.

1994년 10월 일

제 주 대 학 교 총 장

취업특강 및 기업 채용정보 설명회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94하반기 채용패턴 및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초창기 업체에 우리 대학의 우수 인력을 홍보함으로써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주요기업체 인사팀장들을 초청하여 취업 특강 및 기업 채용정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일 시: 1994년 10월 27일(木) 10:00~14:00

나. 장 소: 자연과학대학세미나실

다. 참가대상: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라. 초청기업: 한라그룹, 한화그룹, 대 한교육보험, 아남그룹, (주)인턴, 한국중공업

마. 특강 및 설명회 내용

- 1) 기업별 설명회(각기업 인사팀장)
- 2) 취업특강: 면접요령과 인·적성검사에 관하여
- 3) 질의응답
- 4) 채용기업 입사지원서 배부 및 접수

1994년 10월24일

학 생 처 장

社說

명실상부한 센터로 키우자

—외국어교육관 개관에 부쳐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초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진정한 국제화는 우리의 법질서(법·제도)와 시장질서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외국의 그것들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가치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능력이 상대국가의 구성원들보다 우세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지역사회·개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능력과 이를 통한 국제정보의 획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중차대한 시대에 지난 19일에 있었던 외국어교육관의 개관을 모든 제주대인과 더불어 축하함과 동시에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외국어교육관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89년 학·처장회의에서 외국어교육관 설치결의가 있는 이래 지하1층 지상3층 총2천5백㎡규모의 건물 신축공사가 90년 9월 착공되어 지난 8월에 완공되었다. 현재 내년(95년)부터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실 8개실이 진행중에 있고 96년도에는 사운드 라이브러리(sound library), 영화실 등 내부시설이 완비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국제회의장, 시청각교육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갖추기 위한 제2차공사를 계획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청사진이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우리의 외국어 교육관은 국내 및 외국의 대학들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외국어 및 시청각 연구/교육센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어교육관 운영관계자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훌륭한 외국어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외국어교육관 개관과 더불어 학생과 외국어교육관 운영당국에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한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하고자 하는 바는 재학시절에 외국어 구사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면 외국어 실력을 배양할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국어 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국어하면 영어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이외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학생들이 역사창조의 주역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때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및 한국경제의 부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잇는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들 동북아 3개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2조달러에 달하고 1인당 GDP는 1천9백달러로 이들의 경제력은 북미나 EU에 대등한 수준에 있다.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 3개국의 발전속도를 북미나 EU의 발전속도와 비교해볼때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학생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의 습득에도 열중하기를 당부한다. 외국어교육관 운영당국에 조언하고자 하는 바는 외국어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치밀하게 창출함과 동시에 외국의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훌륭한 연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교육개발 프로그램은 소수의 능력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해당 외국어의 구사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어 연구/교육프로그램에 외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학생 교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제주대인들이 꺼지지 않는 애정을 가지고 외국어교육관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총여·동연부회장 돌연 사퇴 평가시기 앞두고 무책임한 처사

10월19일 백두관 3층에는 두장의 유사한 자료가 게시됐다. 다음은 자료의 내용이다.

“알림. 10월13일자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송종익)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동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표를 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0대 일대도약 동아리연합회장”

“공고. 94학년도 제10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봉실(농경3)학우가 94년 10월11일자로 사직하였으므로 본 총여학생회에서는 사표 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0대 통큰사랑 참원시작 총여학생회”

10월 중순이 다 지나가고 있다. 각 단위 과 학생회나 단대 학생회, 총학생회 및 각 공개기구들, 그리고 각각의 동아리들은 이제 서서히 1년 평가라는 중대 사업을 준비할 시기이다.

평가란 무엇인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타당했고 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성과와 오류는 무엇이었던지, 각각의 인자(간부)는 어느 정도 열심히 사업을 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안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어쩌면 1년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평가이다. 평가없이 다음해, 다음사업을 준비한다는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중요한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공개기구의 부회장들이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채 사퇴를 했다. 물론 간부정도였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부회장)은 자신들이 한해동안 공개기구를 이끌어가고자 스스로 결정해서 선거에 출마를 했고 유권자들은 그들을 선택해줬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사퇴를 한다는건 무책의 극치이다.

물러서고 물러서서 부회장도 사람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사퇴할 수도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면 사퇴과정은 어떠한가? 동아리 연합회나 총여학생회는 분명한 공개기구다. 이는 모든 사업과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위라는 뜻이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사퇴과정에서 그들은 동아리인과 여학우들에게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아직도 이런 음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한심스럽다.

난 이자리를 빌어 동아리연합회와 총여학생회 그리고 부회장들에게 요구한다. 어떤 형식으로든 공개적인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사퇴이유를 밝히고 음모적인 사업에 대해 사과하라.

학우들(유권자)의 눈이 그대들을 직시하고 있다.

(김경·농경제2)

독자의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를 개선하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3배내외, FAX: 56-2204)

자연대 화장지자판기 왜 잠자나 지연되는 타당한 이유 제시해야

우리 자연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여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월 대동제 때 주점을 열어 벌어들인 이익금과 자연대 여학우들과 교수님의 보조금으로 위생대 자판기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자판기가 설치된지도 벌써 두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자판기 사용은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판기를 설치한 목적은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의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도 꾸어다는 보리자루 마냥 아무 쓸모도 없이 화장실 한켠에 놓여 있을 뿐이다.

자판기설치를 5월 대동제 때부터 준비한 것을 보면 자판기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 중의 하나로 잡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94년의 3분2가 지난 지금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일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학위에서는 자판기의 마련과 정과 관리부분, 소비조합 이사회의 심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료를 통하여 알린 바가 있으나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자연대의 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용돈까지 보조해가면서 이 일을 도왔는데 지체되고 있는 이유나

사용시기를 모르는 학우들의 입장에서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자판기 사용이 아직까지 금지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나 사용시기를 자보를 통해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운정 수하3)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적 절차 밟는중”

이번 독자의 소리에 투고된 수학과 양운정학우의 자연대 여학생 화장실 화장지자판기 왜 사용 안되고 있나에 대한 관계당국의 답변을 들어 보았다.

자연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화장지자판기를 자체적으로 구입, 자연대3층 여학생화장실에 설치했다.

그러나, 물품관리법시행규칙상 학생회에서 시설물을 구입했다 해도 학내의 모든 시설물은 학교당국에서 관리하도록 반드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자연대 학생과를 거쳐 후생과로 넘겨져 행정처리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판기는 먼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류절차가 늦어져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영우(수학과 교수) 자연대 학생과장은 “학생회 측에서 이러한 서류작성 절차를 모르고 무작정 자판기사용허가만을 요구하다 일주일전에야 공문을 건네 받았다. 그래서 오늘(26일)에야 공문을 후생과로 넘겼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일기자]

우천시 학교버스 운행 학우들 고마움 느껴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을 인문대까지 오를 생각에 그저 운명이라니 하고 나선 등교길.

캠퍼스내에서 대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해양대-농과대-법정대-경상대를 거쳐 인문대까지 무사히 오노라니 가슴이 뭉클하도록 고마운 마음 뿐이었다. 보통 때 같은데 대학버스는 그저 눈요기로 있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학생들의 등교길을 도와준 처사에, ‘학생을 위한 학교당국’이란 말이 그 순간만은 구구절절하게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다소 당황하거나 놀라는 학우들도 있었고, 나 역시 그러했다.

앞으로 종종 학생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작이나 정책들을 찾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은경 국문1)

제대신문을 읽고

‘고장’ 탓하기 전에 이용자세부터 반성을

10월5일자 제대신문에 실린, ‘중앙도서관 납자화장실이 체증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생각해 보았다.

가뜩이나 화장실도 모자란데 소변기 6개중 3개에 ‘사용불가 소변금지’라는 글귀가 큼직하게 써진채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글귀 못지 않게, 화장실 입구 문에

크게 적혀있는 ‘소변기에 담배꽂초나 휴지등을 버려 고장이 잦기 때문에, 담배꽂초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글귀를 읽지 못했는지.

고장수리를 한 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다시 고장이 난다면 수리를 해서 무엇하겠는가? 학교당국에서는 빨리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어야 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다시 그런 불편을 자초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 자신이 불편을 자초하는 일을 하지는 않고 있는지 반성도 해본다.

(이철우 전자공1)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 총회 또 무산 대의원 각자의 주체의식 결여가 문제

며칠전 학생회관 시청각실에서 94 하반기 대의원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평소 대의원총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던 차에 마침 학생회관에 갈 일이 있어서 일반학우의 자격으로 참관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껏해야 20명 미만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있었고 그나마 참석한 인원도 상임위원들을 포함한 숫자였다. 시간은 예정된 시간을 넘어 계속 흐르고 대의원회 의장은 지루하지 말라고 음악을 틀어주었다.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대의원총회자체가 개최되지 못하고, 나오는 입구에는 총회 자료집만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이주ыл 경제1)

중간고사, 기간내에 치러야 20일 이상의 시험으로 강의 제대로 안배

우리대학은 한 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기간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다른 강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중간고사는 그렇지 않다.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고 단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험기간만을 정해주면서 교수님과 학생들간의 의견교환으로 시간표가 짜여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시험기간이 20일 이상 왜 배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중간고사만 해도 그렇다. 분명히 시험기간이 18일 이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22일까지 시험을 치렀다. 또한, 내가 아는 다른 친구는 24일까지 시험을 봐 거의 3주일을 시험에 소요해야 된다고 불평하는 걸 들었다. 분명히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시험기간을 지키지 않는 과목들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공부한다고 하면서 휴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강의시간에 다음에 있을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고 강의를 빠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시험기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일어나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온다면 수업시간에 빠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또 그 시간에 몇 가지 더 본다고 해서 더 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리상, 모두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시험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이런 행동들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님들도 피해보는 일인 것 같다. 시험기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시험을 치르는 교수, 강의시간에 다른 책 펴놓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무슨 꼴인가. 물론 나는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 않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험기간 안에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피차에 번거로운 시비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이진 국문교1)



POSCO 메세지 대동제

우렁찬 함성속에 되새긴 대동의 의미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의미의 대동—
편견과 작은 이익에 치우쳐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작은 우리의 모습(小我)을
벗어 버리고 보다 성숙된 자아(大我)를 되찾기 위해 우리의 축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학 문화의 전수를 맛 볼 수 있도록—
예비 사회인으로서는 그 의미를 살피지 못할 수도 있음—
포화하는 젊음의 기상과 고뇌하는 자생인의 참다운 모습이 어우러진
대동제에서 한층 커져 버린 또 하나의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포항제철

시사기획 북·미합의와 남북관계 전망

협상통해 북·미 모두 실리 얻어...한국외교는 실패

민간수준 경험·교류 자유화 우선해 장기적 외교전략 수립해야

류길재

경남대 국제문제연구소

북한핵문제로 시작된 北美협상이 지난 10월21일 마침내 타결되었다. 그 내용이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 우선 여기서는 이 합의가 도출된 원인을 되짚어보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합의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인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은 끝도 알 수 없는 지리한 협상으로 점철되면서 때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감돌기도 했었던 기간이었다. 북한은 무모한 핵전쟁도 불사하는 비합리적인 「집단」인 것처럼 보였다. 韓美 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해 북한핵을 저지하기 위해 인내와 양보를 아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경제제재와 아울러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오히려 소수견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사실인가 북한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북한 핵개발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정보를 동원하



◇ 북·미 합의문을 교환하는 로버트 갈루치 미국상처관보와 강석주 북한외교부장.

더라도 북한이 핵 「무기」를 이미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개발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태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조만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넘어서 핵무기 용의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한 북한 「벗기기」작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NPT(핵비확산조약)의 연장을 위해서 IAEA를 통한 완벽한 사찰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IAEA와 NPT는 존재의의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비유컨대, 어떤 여자가 진정으로 처녀인가 아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녀膜的 어떤 부위를 마름대로 유린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그 처녀로부터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부분에 대한 각종 첩보가 난무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개발이 핵 「무기」개발과 반드시 등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간파하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핵문제를 문제삼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직 하다.

이와같은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북한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핵문제의 초기 수습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돌변해 버렸다. 북한은 지난 반 세기동안 자존의 존재를 잃어버려 왔으나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핵문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효과와 선전효과를 갖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동요로서 북한핵문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북미회담은 타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결코 미국의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양국은 이 회담을 통해 얻은 것을 얻었고, 그것을 얻기 위한 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남한은 어떤가. 남한은 과연 보수언론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 협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고, 미국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공색하게 합의문에 넣는 데 간신히 성공했으며, 쓸데없는 경수로 지원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외교는 철저히 실패했다. 적어도 외견상 이러한 측면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중요한 실책이 아니다. 한국외교가 진정으로 실패한 것은 외견상 모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2년여동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협상의 궁극적인 방향을 전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화나 협상은 쌍방이 상대를 상호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을 그러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를 아무리 외쳐봐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비유로 들면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측량해 보았지, 북한은 우리가 이를 다룰 갖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과연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당근」을 줄 것이며, 어떤 「채찍」을 휘두를 수 있었는가. 그렇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모두를

진 9년 반만의 유학생을 겨우겨우 끌고 6월 말경에 귀국하면서 거의 10년전에 떠나서 한 번인가 약 2주간 잠깐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은 생소한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다. 길거리와 술집마다마다의 변화와 번쩍거리거나 흥청거리고 거리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빼어나고 고운 치장과 옷차림은 그 동안 살았던 세계에서 한두번쯤은 잘 산다고 하는 미국과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 비록 내가 인구 십칠만의 조그마한 도청 소재지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때도 뉴욕이나 시카고정도는 한번 둘러 훑어본 경험에 있다고 말하고 넘어가야 앞뒤가 맞을 것 같다. 가끔 쳐다보는 텔레비전에서는 프로마다 큼직한 상품이 달린 일종의 「노는 게임」이거나 아니면 호화롭고 찬란한 무대와 동화같은 같은 규정된 상황에 곁여 언제나 아주 젊은 배우들의 이야기들은 무대나 찬란해서 뿐만 아니라 내용의 단순함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무언가 만화적이고 선전적임으로 시청자로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즐거운 시간만 공유하면 되는 듯 싶었다.

10년전의 세상밖에는 기억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노력 없이도 필요 없는 즐거움과 호화로움과 풍족함은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으며 그건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한강의 기적을 내가 이 두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오려는 우선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북한은 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험과 핵문제를 연계시켰던 우리의 정책은 완전히 빗나간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정책이었다.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면 것이 이 정책의 내용인데 북한은 남한의 경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대화 교류의 기회는 빈번해질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남한의 경험은 아직 카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대외무역의 노하우에 충분한 사례를 받게 될 때, 비로소 경험이 북한을 움직

“여기가 바로 천국”



민창식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을 뿐 더러, 또 그런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일종의 암시를 사방곳곳에서 주는 듯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내 머리를 가득 채운 결론은 바로, '아, 한국이 아니냐' 사이에 이렇게 발전해 버렸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도 충분한 이유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 오래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술값으로 선뜻돈 백백(약 8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써도(저쪽 나라에서는 하루저녁 술값으로 백백을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당시에 그렇다하는 직장인 없는 나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친구들의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씩씩하고 집착하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학생으로서 일주일의 번을 일하고 번은 세급 때로 천오백불(약 백만 원)보다는 엄청 많이 버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마다로부터 느낀 점이 바로 여기가, 미국이 아니라, 여기가 무한한 진짜 가능성의 세상 같 이만 보였다. 그러면서 내 가슴 가득히 매웠던 생각이 '내 바로 천국이여'라고 '그 지

결코 재미없는 미국에서 귀국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만약 천국이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천국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게 하는 편한 세상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왜곡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훨씬 더 확고하게 그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학교 올라오는 길 옆에 세워진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팻말은 무언가 지시적인 냄새를 풍겨서 정말 사람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발상은 상당히 천국적인 듯 보였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마치 버린 사람들만의 탓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풍기는 이 문구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고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단순한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국적」일 수밖에 없는 듯 싶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천국적이라는 생각은 경운이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막는 횡행는 사람들로 부터 교내에서 학기 내내 풍파리치고 노레부르던 학생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 만들었던 모든 집단의 구성원 누구든지 열심히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듯 싶었다. 생각되는 방향과 관련된 고 연결된 집단에 따라 정말 이 세상이야말로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인 듯 싶었다.

(해양토목공학과 조교수)

■ 시사영어

독점금지법

독점 금지법의 대의 적용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은 미국 국내 또는 대외관계 없이 미국의 독점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미국 통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어긋나거나 법에 의해 인정된 범위를 벗어난 외국 경쟁기업간 합의를 독점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제

무역보다는 미국 독점법의 적용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독점법의 대의적용 대상으로 △미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목적으로 이뤄진 수입업자의 반경쟁적행위 △미국내 판매가 없이 미국의 독점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북한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핵문제의 초기 수습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돌변해 버렸다. 북한은 지난 반 세기동안 자존의 존재를 잃어버려 왔으나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핵문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효과와 선전효과를 갖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동요로서 북한핵문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사회특집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만든 사람들

넉넉한 결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현대건설
세계 29개국 총 250억 달러 공사 완공
건설도급순위 1위

현대전자
연간 매출성장률 1위
2000년 세계 10대 우량기업대상 목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93년 매출액 대비 공익투자 1위
(총 누계 2,615억원)

18만 現代人의 참모습입니다.

그들은 크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민생에
은 힘을 쏟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큰 일꾼입니다.

그들은 넓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무기로
세계 176개국과 교역 HYUNDAI, KOREA를
지구는 곳곳에 알리는 국제화의 기수입니다.

그들은 깊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무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들이 맺은 넉넉한 결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 18만 現代人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現代

□故 윤금이씨 사망 2주기를 맞이하며

불평등한 한미행정 협정 개정

굴욕의 역사 청산...미군의 범죄 뿌리 뽑아야

조선의 가을 하늘은 높고도 맑아 울려다만 보아도 눈물이 그렇그런 고인다고 어느 시인은 노래했다. 그리고 그 맑고도 높은 가을 속으로 주한미군에 의해 잔혹 살해된故 윤금이씨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1992년 10월 윤금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병이 지난 5월17일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됨으로써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윤금이씨 살해 사건은 발생 1년6개월여만에 일단락 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여성의 자궁에 폴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분노하였고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마클이병에 대한 거의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법 집행은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로 인한 것이다.

윤금이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 미군범죄라는 부분을 아주 선명히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선명해졌다는 것이지 결코 새로운 문제 제기일 수 없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고질적인 것이었고 계속적 한·미 관계에서 조장되고 방치되어온 굴욕의 역사인 것이다.

윤금이씨 사건 발생 8개월여 만에 다시 발생한 김국혜씨 사건이라든가 유계혜씨 살해 사건, 김분임씨 살해 사건등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분노에 아랑곳없이 범죄 행각을 일삼고 있다.

미군범죄가 심각한 양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한·미 관계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

다.

우선 주한미군은 그들의 범죄에서 드러나듯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 '가장 잔혹한' 방법을 일삼으며 그러면서도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인 안하무인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미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주력 미 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0.7%의 재판권 행사율은 한국 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윤금이씨 사건을 '한날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가 하면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에 게서는 주권에 대한 의지도, 민족의 자존심도 찾아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미 행정협정이라 불리워지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은 그 불평등이 여권의 지탄을 받아 1991년에 개정 되었지만 불평등속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개정된 한·미 행정협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살펴보면 ▲미군은 살인, 강간 등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구속 수사하지 않는다.(본문 22조5항:피의자가 미군 관할하에 있으면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군 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이 구금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 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의 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본문 22조1항:미



◇독소조항이 사라질때까지 한미행정협정 개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군의 군속이나 가족 등 민간인은 미군의 형사관할권 대상) ▲한국에 전속 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그 전속 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합의 의사록 22조2항) ▲한·미 양측이 모두 형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은 포기한다. (본문 22조3항:미군이 그 구성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에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군도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본문 제 22조 7항: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교도소에서 수감중인 미군 구성원의 신분인도를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측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 ▲협정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상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에 따른다. (제31

조) 등의 조항이 있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10만 건을 상회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미군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살인, 강간, 강간, 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비밀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윤금이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던 공동대책위가 '주한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운동으로의 전환은 바로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의 개인의 고통으로가 아닌 정당한 요구로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그렇그런 눈물 고인 눈으로 반도의 하늘을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말라!

(성기남 국어교과4)

□우리의 대자보문화 수준

내용·사후처리문제 등 미흡한 점 많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사회적인 분위기에 걸맞게 대학의 대자보문화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대학인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 학우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분히 체제변혁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배계급의 세력권 지배방식으로의 변화는 대학에서의 대자보의 내용을 급격히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몇년전만 해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온 학교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조직화하자는 내용의 대자보로 뒤

덮일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그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판만을 일삼는 것 역시 지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무감각하게 제삼자인바라보고만 있는 것 역시 대학인의 자세로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대자보 및 홍보물을 게시하는 주체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대자보 및 홍보물은 대부분 동·공·아리·단대축제와 관련한 홍보물이다. 특히 주점에 대한 홍보물은 압도적 다수를 점한다. 굳이 학원내에서 사회적인 대자보나 홍보물보다 비사회적이면서 지극히 소비적인 주점홍보가 판을 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자보 및 홍보물이면 아니면 주점홍보를 위한 대자보나 홍보물이면 간에 그것들을 게시하는 주체들이 불이기는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한이 일주일 이상이지났는데도 여전히 벽에 붙여진 채로 시작을 오열시키고 있는 홍보물들, 내용의 절반은 사라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내용물마저 제대로 선택하지 않은 채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홍보물이나 대자보를 보면서 과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들이 설령 부착되어 있는 홍보물과 대자보를 통해 하나의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가?

최근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전서비스에서부터 사후서비스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만일 우리학교의 대자보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주체들이 만약 사회의 기업체라면 그들은 아마 출발도 하기 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의 소비자재자들은 사전서비스는 물론 사후서비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만큼 어려서지는 않지 때문이다. 상품은 쌓여 있고 고객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대자보나 홍보물 게시에서부터 우리학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자보를 통해 본 우리학교의 현실인 것이다.

(오한정·영문 4)



■교수동정

▲신형철 기획실장(사회학과)교수=지난 10월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노스텍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국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 발표

▲고영규(사회교육과 교수)교육대학원장=지난 10월14·15일 양일간 전국 교육대학원장협의회 주최로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3대 전국교육대학원협의회 회장으로 피선

▲고대웅(사범대학장·영어교육과)교수=지난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하는 9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에 참석

▲고정삼(농학과)교수=지난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농학학회 주최

94제 심포지엄 참석

▲유장경(농학과)·류기중(농)교수=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한국식물생명공학회가 주최하는 제2차 한·독 식물생명공학 심포지엄 참석

▲박양문(농학과)·오현도(농)·조남기(농)교수, 송창길(농)교수=지난 10월7일부터 9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작물학회 주최 추계학술발표대회' 참석

▲김찬식(농학과)교수=지난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에서 열린 '한국분자생물학회 주최 '94추계학술대회' 참석

▲오문유(생물학과)교수, 이화자(농)교수, 김세재(농)교수=지난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분자생물학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94한국분자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

▲오문유(생물학과)·이용필(농)·김문홍(농)·김원택(농)·오덕철(농)교수, 김세재(농)교수, 이옥영(농)교수=지난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생물과학학회 주최로 대전 충남대에서 열린 학술발표대회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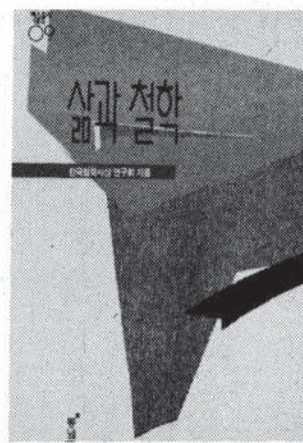
▲한성빈(화학)교수=지난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대한화학회 주최로 충북에서 열린 '제74회 학술연구논문발표회 및 추계총회'에 참석

▲정덕상(기초과학연구소장·화학)교수=지난 10월13일부터 14일까지 화·연·산 연구 교류회 주최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생활과학대학 창립30주년기념 국 제심포지엄에 참가

▲김양순(가정관리학과)교수, 김정숙(농)교수=10월27일부터 28일까지 연세대 생활과학대학연구소 주최로 연세대에서 열리는 가

시평 『삶과 철학』—한국철학사상 연구회지를

철학 없는 세상에 부치는 철학적 메시지



'철학개론' 첫 시간이다. 매번 많은 강의지만 첫 시간은 항상 긴장되고 또 설레인다. 대형 강의실엔 백범을 훨씬 넘는 학생들이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종나물 시루 같은 강의실엔 방음장치, 음향장치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포스트 모던한 신세대들이 프리 모던한(전 근대적인)강의실에 철학을 배우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다. 생각의 보따리를 풀어 놓기엔 강의실의 분위기가 너무나 답답하고 심지어는 짜증스럽기까지 하다. 무슨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강의를 이끌어 가야할지, 자기감정과 개성의 표현이 솔직히 이른바 포스트 모던한 세대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철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망설여진다.

교재에 의존하여 서양철학사를 중심으로 시대를 앞서 간 선철학의 사상을 충실히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철학적인 문제의식으로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줄 수 있는 토론식 강의를 해야 할지(그러나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의 실정은 교양과정에 토론식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감하다. 아마 이러한 난감함은 비단 필자에게만 국한된 느낌이 아니라 대다수에 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강단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느낌일 것이다.

『삶과 철학』을 공동집필한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젊은 연구자들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진정 한 철학으로 안내해 줄 수 있을 만한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해 왔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처음 나온 것이 3년전에 출간된 『철학강의-삶, 사회 그리고 과학』이었다. 『삶, 사회 그리고 과학』은 삶과 철학, 사회와 철학, 과학과 철학으로 크게 세분야로 나누어 철학이 사변적인 공리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 또 하여금 올바른 현실인식을 심화시켜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이 책은 집필자들이 고된 노력과 노력했던 흔적에도 불구하고

하고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군데 군데 난삽한 개념설명이라든지 충분히 여과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논리의 표출이 눈에 띄어 철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나온 『삶과 철학』은 기본적으로 『삶 사회...』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충실히 견지하면서도 『삶, 사회...』가 간과했던 여러 문제들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즉 '마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정보화 사회가 초래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인공지능의 문제를 의식하고 생명현상 및 자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든지 '문화와 대중사회'에서 현재 철학을 배우는 세대들이 어릴적부터 감각적인 영상매체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란 '신세대'들을 고려해 대중문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장을 마련하고 있다든지 또 심각한 전지구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생태계와 환경 및 이와 관련된 기술문명의 문제를 '환경과 기술문명'에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서술의 방법에 있어서도 전에 없던 참신함이 돋보이는데 가령 '노동과 소외'를 다룬 장에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찬찬히 분석하여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게 인간성을 왜곡하고 소외시키는지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의 모든 철학교과서가 서론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대별로 또 문제영역별로 철학 사상을 서술해 나가고 있듯이 이 책에서는 서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 물음에서

부터 시작하여 마음과 욕망, 사랑과 결혼, 가족, 노동과 소외, 상품과 근대사회, 문화와 대중사회, 환경과 기술문명, 과학과 자연 그리고 종교와 초월 등 다양한 현실문제를 두루 살핀 뒤, 결론적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의 연관 속에서 이론과 실천이 통일되는 지평합일(知行合一)의 철학을 강조하고, "철학을 배우는 것은 철학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 즉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함을, "진실로 철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선 성실한 삶, 고뇌하며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역설한다.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끝내는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삶의 지혜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모든 것이 극도로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철학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기술만능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취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교양철학의 필수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학을 사설원전처럼 생각하는 실용주의자들, 돈이란 안되는 것이 없다며 정신적 삶의 가치를 망각하고 눈앞의 물질적 이익을 쫓아가는 철인이 되어 있는 풍조상세주의자들, 나아가서 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기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을 통찰하는 지혜를 익혀 내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청년학도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이 한권의 철학책을 권한다.

인간의 상상력을 불허하는 기상천외의 반인간적 범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의 파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풍이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가치가 전도되고 뒤죽박죽이 된 이 황량하기 그지없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인간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 책이 조그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철학이 없는 세상은 인간성상실의 시대에 부치는 철학적 메시지이다.

김현돈 독어독문학과·조교수

신문시사문화 시각 문제있다

대통령은 책임 없다...팔짱끼고 호통치는 모습으로만 그려

매체비평

신문에 게재되는 시사문화는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깊고 넓을수록 그 가치가 큰 것 같다. 등장인물 한 두명이 펼쳐내는 파노라마는 신문 전부를 대표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사회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나도 그렇지만 많은 독자들은 신문의 1면 머릿기사 못지 않게 사회면의 4컷짜리 만화에 눈을 먼저 돌린다는 통계를 예전에 언젠가 접했던 것 같다. 만화를 보면 독자들은 신문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며 시간제약상 신문기사를 전부 보지 못한다 해도 만화까지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만화는 신문기사를 대표하고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각 신문사들은 비록 4컷짜리 그림에 불과하지만 통찰력 있고 유능한 화백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5공화국까지의 정치환경속에서는 신문문화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주로 등장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치 권력자들도 많이 등장한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과거에는 표현조차 할 수 없었던 인물까지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과감성마저 보이고 있다. 약삭빠른 장관이 이리저리 잘 빠져나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귀가되고 불링공으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국회의원도 있다.

그런데 일간지에서 대체적으로 표현되는 YS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도 관대하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지촌과살인 사건, 택시기사의 연속적인 살인극, 인천북구청의 세금횡령사건발생에 대하여 YS가 해당장관에게 혀를 끝끝 찡는 만화가 줄을 이었다. 사회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은 장관이나 국민모두에게도 있지만 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도 간과한 것 같다. 왜 대통령은 팔짱만

끼고 있고 호통만 치는 모습에 일관되어 하는가?

그것은 아마 문민정부 출범부터 사정의 칼날을 갈았던 아주 좋은 이미지에 모든 판단력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신문은 날카롭게 사회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의 신문을 보는 시각이 다시 한번 더 달라지는 것 같다. (이흥렬 경영(아)2)

제14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 분 야: ○주제논문(70매 내외)
 -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70매 내외)
 -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 시 상: ○주제논문 당선작 1원-50만원
 - 일반논문 당선작 각 1원-50만원
- 응모마감: 11월2일(수)
- 제 출 처: 대학원동(구 학생회관) 3층 본사편집국 (동기유권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장부'를 명기할 것)
- 당선작발표: 추후 공고
- 기 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 (☎ 54-2278, 2279)

제대신문사

차기 총학선거 11월 24일 실시 오는 28일까지 입후보자 등록마쳐야

지난 10월19일 대의원회(의장 고락현 회계4) 상임위원회에서는 95학년도 학생회 선거 일정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시행세칙개정안을 확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학생회선거일정을 보면 △입후보공고=10월20일 △등록기간=10월24일~28일 △대의원 등록기간=10월31일~11월4일 △학년대표선거=10월31일~11월4일 △투·개표 중사자 모집=11월10일~13일 △단과대학 학생회선거=11월14일~18일 △총학생회 선거=11월22일 △대의원선거=11월23일 △총학생회선거=11월24일이다.

학생회 선거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해결 및 선거를 총괄 관리하게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윤석 수석 2)는 지난 10월19일 발족식을 갖고 10월20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신진회(일문 2) 강정심(준문 3) △법정대=임은용(법 2) △경상대=이춘협(경영 1) 양상현(경제 2) △사범대=김정란(과교 1) △농과대=강종우(농경제 2) 강은정(원예 3) △해양대=백진호(해양환경공 4) 김봉철(해양환경공 2) 김병섭(해양 1) △자연대=오윤석(수학 2) 강지연(가정관리 2) △야간간좌부=함성진(경영 2)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거시



◇지난 19일 열린 예정이던 대의원총회가 정족수미달로 무산(사진)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일정에 대한 결정권이 상임위원회로 위임됐다.

행세칙에 의해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종전에 단일후보제 총유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이 유효투표의 2분의1이상이 찬성하면 당선이 확정됐었는데 반해 총유권자 3분의1이상이 투표를 하고, 그중 2분의1이상이 찬성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또한 현재 학생회구의 간부로 활동하는 사람이 차기학생회자치기구의 정·부회장에 입후보할 때는 등록마감일 7일전에 현재의 직책에서 사임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위 사항들은 지난 19일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안건이었으나 대의원 1백65명중 24명만이 참석해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모든 의결권한이 상임위원회로 위임됨에 따른 것이다.

“음식질, 식대인상전과 차이없다”

대의원회·학자주 공동 설문조사결과 소비조합 매장도 문제 많아

대의원회(의장 고락현 회계 4)와 학원자주추진위원회(위원장 한재훈 회계 3)가 지난 10월5일 6백25명을 대상으로 생활복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5%(3백79명)에 해당하는 학우들이 식당음식질에 대해 식대인상전과 인상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31일 상반기 대의원 총회에서 식사 질 및 서비스개선을 전제로 식대 7백원에서 9백원으로 인상한 후 개선의 정도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소비조합매장·이용원·미장원·복사실의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 분석결과를 보면 ▲식대인상 전과 인상 후 식사질에 대해서는 △3백79명(62.5%)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

게 없다고 대답하고 △그레도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다(23.6%) △예전보다 못하다(11.2%)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1.7%) 등으로 변한 게 없거나 전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학생회관 식당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3백98명(77.4%)이 식사질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식사환경(12.1%) △식당종사자의 서비스개선(8.6%)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원 가격에 총학생회와 의 합의 없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해야 한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13%) △다른 업자에게 넘기도록 하여야 한다(10.6%) 등의 강력한 입장이 적지않아 가격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물가인상과 관련해 복사실의 복사 및 출력가격을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타대학과 비교 검토한 후 전국대학의 평균수준이 돼야 한다(27.6%) △복사비마져 인상해서는 안된다(27%) △서비스 및 복사질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24.6%) △차기 인상 시한을 정하고 인상해야 한다(19.1%) 등으로

故윤금이씨 2주기 추모기간 설정 총여, 초청강연등 행사마련

총여학생회(회장 성기남 국문 4)에서는 10월25일부터 28일까지를 '故 윤금이씨 2주기 추모와 추한미군 범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초청강연 및 비디오상영 등의 행사를 갖는다.

△10월25일(오전 11시)은

의견을 보여 복사비를 인상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안경·전자제품·기념품 및 약세사리·여성용품·음반 판매점 등 소비조합매장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개선점에 대해서는 △가격인하요구와 △상품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1회 음악학과 졸업연주가 오는 10월27·28일(오후4시·7시) 양일간 법정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졸업연주회에는 △성악 9명 △피아노 6명 △호른 5명 △첼로 3명 △바이올린 5명 △플루트 1명 △작곡 3명 등 음악학과 4학년 재학생(대표 김미희)32명이 창작곡 '부활'을 비롯해 모두 50곡을 연주한다.

소농대동풍이 개최

도시사 초청강연등 마련

제12회 '소농대동풍'이 농과대학생(회장 김태형 농학 4)추위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야외음악당 및 학내 곳곳에서 열린다.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제주도 농정'이란 주제로 신구별 제주도시사의 초청강연이 있고, 27일에는 야외음악당에서 △단체출발기 △투호경기 △소농 퀴즈야카데미 △농경 가요제 등이 열리며, 마지막날인 28일에는 대운동장에서 소농축구 왕중왕전이 열릴 예정이다.

‘제주무역을 말한다’ 지조위, 고경표 교수 강연
‘제7회 금요일에 만난사람’ 지역조사위원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추위로 오는 10월28일 오후1시 백두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고경표(무역학과) 부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가정(주)제주무역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제주도 무역문제 전반에 대해 강연하게 된다.

2학기 등록률 99.6%

올 2학기에는 재학생 7천4백20명중 7천3백94명이 등록해 99.6%의 등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리과(과장 김남식 서기관)에서 지난 10월중순경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문대 1천2백92명과 사범대 4백44명이 모두 등록해 1백% 등록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법정대 6백8명 중 6백7명 등록(99.8%) △경상대 1천1백54명 중 1천1백46명 등록(99.3%) △농과대 8백84명 중 8백83명 등록(99.8%) △해양대 6백19명 중 6백17명 등록(99.6%) △자연대 9백81명중 9백74명 등록(99.2%) △공과대 1천4백37명 중 1천4백31명(99.5%)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원생 3백35명중 3백29명이 등록해 98.2%의 등록률을 보였다.

취업정보설명회 개최

27일 10시 자대세미나실서...6개 기업 참가

장학담당관실(담당관 문천탁)에서는 오는 10월27일 오전10시에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취업특강 및 기업채용정보 설명회'를 갖는다.

우리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 94학번기 채용패턴 및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대학의 우수인력을 홍보함으로써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취업정보설명회에는 한라그룹, 한화그룹, 아남그룹, 대한교육보험, (주)인턴, 한국중공업 등 6개 기업체가 참여하며 △각 기업별 설명회 △취업특강-면접요령과 인·적성검사에 관하여 △질의 응답 △채용기업 입사지원서 배부 및 접수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13일 발표된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부분 △우수상=이현아(사대부중 1) 안용휘(오현고 2) △가작=정해진(중앙여중 2) 김미나(제서중 1) 김혜영(예월고 2) 홍우영(제주여고 1) △입선=채정실(신성여중 1) 김형선(제주여고 1) 등 14명

▲산문부분 △우수상=박하연(아라중 1) 남수정(세화고 1) △가작=현해선(신성여중 1) 김형미(중앙여중 1) 홍우영(제주여고 1) 고승환(제주여고 2) △입선=문은혜(동여중 2) 김미리(세화고 2) 등 14명

이번대회 시부분 심사는 김병택(국어국문학과)교수와 윤석산(국어교육과)부교수가, 산문부분 심사는 김태균(·)·문성숙(·)부교수가 맡았다.

김지희양·김현성군 최우수상 차지

국교 주최 중·고백일장서

오백마흔여덟돌 한글날에 즈음해 국어교육과(학과장 문성숙 부교수)추위로 열린 제30회 전도 중·고 백일장에서 '추억의 더듬이'란 시를 쓴 김지희(아라중 2)양과 '역세'란 시를 쓴 김현성(대기고 2)군이 각각

중·고등부 최우수상에 당선됐다.

지난 7일 야외박물관에서 시·산문부분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백일장에는 중등부 14개교 2백41명, 고등부 10개교 1백31명 등 총 3백72명이 참가했다.

도서기금 5백만원 기증

재일 관서 제주도민회 청년부회서

재일본 관서 제주도민회 청년부회(회장 박승복)에서는 지난 10월8일 일본서적구입에 사용돼 달라며 도서기금 5백만원을 우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도서기금기증식은 청년부회 회원 8명과 고장권총장·한정영 도서관장을 비롯해 관계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재일본 관서 제주도민회 청년부회는 올해 재일제주청년회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71년부터 93년까지 총22회에 걸쳐 도서 4천8백15권(1억3천8백만 원 상당)을 우리대학에 기증한 바 있다.

아라체전서 농대 종합우승

일반학우 무관심 여전

지난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대운동장에서 열린 '94 총장기 제12회 아라체전'에서 농과대가 종합우승, 법정대가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 보장'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총학생회(회장 홍진혁 중식4)추위로 개최된 이번 아라체전에는 1천2백㎡계주·축구·배구·족구·씨름·팔씨름·줄다리기 외에도 돼지돌이기를 비롯, 장기대회·과대 줄넘기 등의 행사가 치러졌다. 21일 열린 예정이던 교직원 테니스대회는 비날개로 인해 취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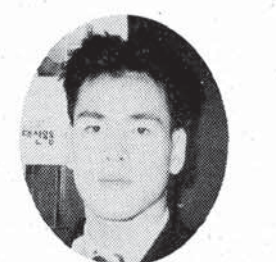
94아라 체전은 지난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각 종목의 예선경기, 21일부터는 본선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각 종목별 우승·준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축구=우승: 농과대, 준우승: 자연대 △배구(남)=우승: 자연대, 준우승=농과대 △배구(여)=우승: 경상대, 준우승: 사범대 △씨름=우승: 농과대, 준우승=자연대 △팔씨름=우승: 농과대, 준우승=사범대 △줄다리기=우승: 농과대, 준우승: 법정대 △족구(남)=우승: 법정대, 준우승: 사범대 △족구(여)=우승: 농과대, 준우승: 사범대.

방승훈 학우 '금' 획득

제12회 아시안게임 수영서



며, 계영 8백m에서도 동메달을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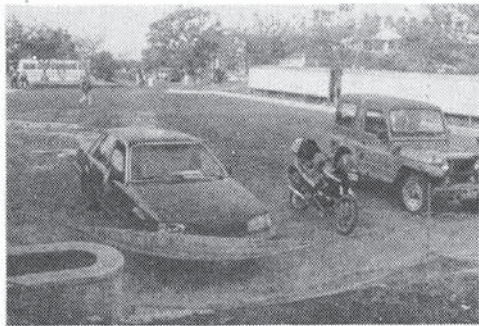
한편, 개인혼영 4백m에 참가한 김태균(체육 1)학우는 결선 7위에 그쳤다.

연주기금 마련위한

음악학과 전시회

제3회 박지순회연주기금 마련을 위한 CD전시회가 음악학과학생회(회장 김승철 3)추위로 지난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백두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매년 음악학과 학우들의 박지의 분과 등을 돌려 연주 및 음악작품 감상을 시켜주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기간 중에 CD판매도 같이 한다.

사진 뉴스



◇날아다니는 차? 교양강의동과 지리교 분발에 썩어있는데 여기 세워진 이 차들은 어디로해서 들어온 것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교양강의동과 이 풀밭에 버려진 '주차금지'표. 그후 아무도 다시 세워 놓지 않아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연재쯤이면 나올까?

한총련의 항구 진로를 모색하고자 실시된 '백만학도 의견개선 운동' 설문지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음에 따라 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총학회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작된 의견개선운동이 '추석연휴', '단대축제'일정 등으로 인해 잘 안됐다고 하고 있지만,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추진력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오.

○...썰렁한 아라체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아라체전은 출전선수들의 체전임을 또한 번 명백히 입증.

선수들은 골경치리가 되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기를 벌였겠지만 구경하는 이도 응원하는 이도 없는데 무슨 흥이 났겠는지.

총학에 재연하건대, 체전과 축제를 통폐합해 1년에 단 한번만이라도 1만 아라가족이 다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관'을 만드는 게 어려웠는지.

○...이름뿐인 출판부가 되지 않길. '폐지'위기 막바지까지 다달았던 출판부가 대학원 2층건물에 팻말을 달았다고.

출판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 움직임이라 여겨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예전처럼 이름뿐인 출판부가 아닌 재역할을 다하는 출판부가 됐으면 하오.

실종된 우수인생 유치책

그러기 위해선 교무과나 기획실의 한두사람 손에서 활성화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관계교수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

○...수수방관은 그만.

이번 처음으로 본교사를 치르게 되는 우리학교는 대입 3개월도 남지 않았을 시점에서 이렇다할 획기적인 신입생 유치방안이 마련되고 있지않은 채 '팔짱'.

타대학들은 입시전담부서를 구성,

대학홍보용 비디오까지 만드는 등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해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대학에서는 몇년 전까지 계속해오던 도내 교장 및 진학담당교사와의 간담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대학간 경쟁시대를 맞아 대학운영도 기업경영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도대체 어찌려고 이러는 것인가?

○...유능한 교수님을 모셔오자! 올해 우리대학은 15개학과 18개전공분야에서 모두 18명의 교수를 공개채용하기 위해 오는 11월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작년 교수공제시에는 17명모집에 10명만이 최종 채용돼 신생학과에 대한 지원부족과 강의부실을 초래해 학과별 비만이 제기되는가하면 교수들간의 알뜰 때문에 공채를 못한다는니 등등의 잡음이 일기도 해.

이번에는 지난해와 같은 잡음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요, 공개하는 분야에서 진정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길 기대하오.

대학신평속도-(3) 지성인임을 부끄럽게하는 '커닝' 백태

커닝으로 장학생까지... 미리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일도
자율적 '커닝 안하기운동' 뿌리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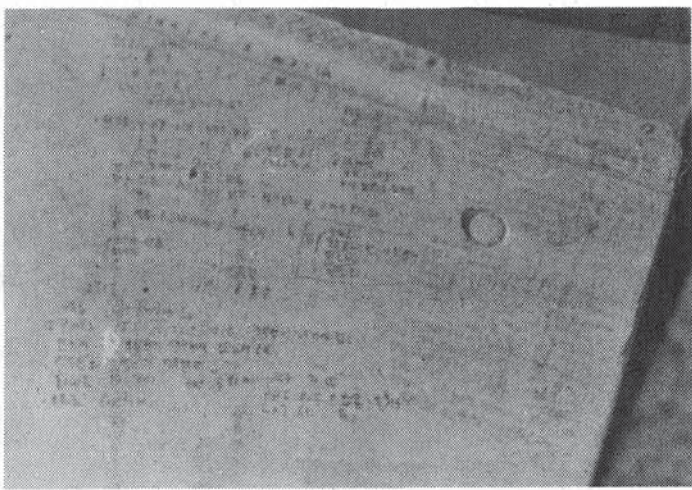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다. 아마 시험기간동안 시험만 끝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할 것들에 대해 머리속으로 그려보았을 것이다. 시험이라는 부담감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얹어매는가 보다.

시험기간만 되면 볼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부끄러운 A학점보다 멋진 B학점이 낫다' '커닝하지 말자'는 등등의 현수막과 강의실 책상과 벽에 까맣게 색칠하다시피 적어놓은 커닝용문구.

어느 1학년 학우는 주위에서 커닝하는 행위들을 보다가 참지못했는지 답안지에 '이것이 지성의 전당에서 행해지는 일인가라는 글귀를 남기고 시험장을 나갔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의 '이것'은 부정행위를 말한다. 어느 시험시간에는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커닝쪽지를 태워 그 강의실 휴지통에 버리고 나오는 학우도 있었단다. 책상이 널널하게 커닝용문구하며 커닝쪽지가 나오는 한 커닝하지 말자는 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혹 이런 현수막이 공염불은 되고 있지 않은지.

시험문제가 미리 제시되는 경우 책상위에는 그야말로 모범답안내용이 적히고, 어떤 경우 시험시간에 아예 답안지를 작성해 들어가 그것을 꺼내 제출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물론 시험이란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커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험성적은 가깝게는 장학금과도 연결되고 멀게



◇책상에 시험용문구를 적어놓고 시험을 보는 것은 예사가 되고 있다.

는 취업시에도 어느정도 관련되는 일인가에 누구나 시험을 잘보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리 책상에 적어놓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옆사람 답안지를 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일 것이다. 또한 호기심과 재미로 한두번 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어느 학우는 자신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시험도 그런대로 봤는데 장학생이 안됐단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쉽긴 해도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책상에 잔뜩 쓴 것을 베껴 써서 시험을 치른 학우가 장학생이 된 걸 알고 부아가 치밀고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건 당연하다.

한 학우는 "그래도 백지로 널

수는 없지 않느냐. 뭐라도 써야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백지로 내기가 창피해서라고 말하면서 정작 창피해야 할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커닝하는 경우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심보가 크게 작용한다. 어떤 학우는 자신도 커닝의 경향이 있다며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커닝을 했다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은 마찬가지이다.

시험양식이나 방식은 교수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이는 교수의 재량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험감독은 허술한 편이다. 그렇다고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자고 부르짖으려는 것이 아니다. 시험감독의 허술이 부정행위들을 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런 개척없이 행해지고 있는 부정행위들 앞에 감독관을 여럿

두어서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하면 문제는 간단할지 모르지만 자유를 열창하면서 스스로 통제받고 통제받아야만 잘못이 고쳐진다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남이 보든 안보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것이다.

"시험방법을 다원화해야 한다. 단순한 암기식 시험보다는 몇권의 책을 들고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즉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 수 있는 유형의 시험을 봐야한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다.

물론 시험문제유형이 달라져 아무리 커닝쪽지를 작성해도 필요없는 것이 되버리면 애써 커닝쪽지를 작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책상에 써놓는 일도 없을 것이다. 허나 이런 나중문제다.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가 하는 것이다.

매번 시험기간이 되면 나쁜 '커닝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 책상위에 뽁뽁히 *적인 펜자국만이나 우리의 양심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을 곧게 세워보자. 부끄러운 A학점보다는 멋진 B학점이 낫지 않은가.

(오유선기자)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초승 12번째 시집



국어국문학과 동문 및 재학생들의 문학동인인 '초승'에서는 열 두 번째 동인시집 『내결의의 사랑이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를

지난 9월말 출간했다.

변종태(82학번)동문의 「가을바다」, 김창호(84학번)동문의 「몸이 녹는 이후」, 부유섭(4년)학우의 「어느 아침」, 김은형(3년)학우의 「서쪽으로 날다」등 모두 13인의 근작시 1백5편이 실려있는 이 시집은 각기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인들의 시를 담고 있어 동인시집이 갖는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향토문화 탐방 유배인의 발자취를 따라 13신임

적거지 주변 제주풍경『한국당집』에 묘사
부자가 제주유배...감산리서 3년간 적거

◇신임(왼쪽)과 조선 후기 당쟁관계에 관한 사실을 편찬한 『신임기년제』

서귀포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30분 정도 달리다보면 감산리라는 조그만 마을을 만나게 된다. 그다지 크지도, 유명한 토산물도 없는 곳이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와 풀이 많아서 관광객의 발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또 주위에 바위산인 산방산과 물 맑은 창고천, 사계바다가 연결돼 펼쳐지고 있어 자연경치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가 삼읍제도로 구성돼 있던 조선시대에 이곳은 대정현에 속해 있었는데 그 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때문에 대정에 유배됐던 유배객들이 적소로 정해 머무르거나 구경차 들르기도 했던 곳이다. 그런 이유로 이 작은 마을에서는 유배객들의 흔적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안덕계곡의 바위에는 유배인들이 남긴 마애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조선시대 끊이지 않았던 사회와 당쟁은 수많은 유배인을 만들어냈고 집권층인 양반은 대를 이어 정치에 종사했으므로 대를 이어 귀양에 처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아름다운 감산리에 유배됐던 유배객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를 이어 귀양살이를 했던 불운한(?) 인물이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신명규는 같은 대정현에 귀양와서 6년여의 유배살이를 했던 12회에 인물이었다.(앞서 이연재의 12회에 소개했었다.) 김진규, 김춘택부자처럼 이들도 부자가 제주에서 유배를 살았던 인물들이다.

84세의 고령으로 40여년 전 아버지가 귀양왔던 곳으로 귀양왔던 사람. 그가 바로 한국당 신임이다. 자는 하중(華中)이고 1639년(인조 17)목재 신명규의 아들로 태어났다. 1657년 진사시에 합격, 1680년 의금부도사를 임명받았으나 나이가 지긋하고, 당시 효종릉사건으로 귀양가 있던 아버지의 역을함을 상소하여 풀려나게 했다. 1686년 별시 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직, 호조좌랑, 경기도 도사, 정언 등을 거쳐 1696년 지평이 되었다. 이때 서문중(徐文重)이 정승이 되었는데 인형후후 민씨가 복원될때 회빈장세를 두둔하려 하였고 탄핵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경성판관으로 좌천되기도 한다. 그뒤 육조의 여러 벼슬과 도승지 대사헌 등을 역임했고 1718년 지중추 부사가 되면서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참판과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1721년과 1772년 양년에 걸쳐 신임사

화가 발생하고 이에 연루되어 신임은 제주 귀양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신임사화는 노론과 소론간에 각각 경종보호와 영조추대의 명분을 내세워 대결한 옥사였다. 숙종조로부터 권력을 잡고 있었던 노론은 경종이 즉위하면서 경종이 건강하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 하루 빨리 연잉군(延礽君)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왕에게 건의한다. 소론측은 이를 반대했으나 왕은 노론의 의견을 따른다. 그런데 세제 책봉 두 달만에 노론측에서는 세제로 하여금 정치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경종은 이를 허락했으나 소론이 이를 격렬하게 반대해서 취소되고 이때부터 경종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소론파에 대해 비호의 뜻을 내비치게 된다. 그래서 1721년 12월에는 소론의 파인 사직 김일경(金一鏡)을 우두머리로 한 7인이 노론에 대해 "왕권교체를 기도한 역모"라고 공격, 노론의 권력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772년에는 김일경, 목호룡(睦虎龍)등 소론의 강경론자들이 노론측에서 경종의 시해를 도모한다는 상소를 올려 노론대신들이 국정을 담고 많은 선비들이 귀양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신임은 84세의 고령으로 소론을 꾸짖고 세제를 보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소론의 공격을 받고 제주에 유배되게 된 것이다. 1772년 제주에 도착한 신임은 감산리에 적소를 정하고 나서 적소의 남쪽벽에 '안정와(安定瓦)'(근심을 잊고 정착한다는 뜻)라고 써붙이고 문외도리에는 '읍로현(梟老軒)'이라 써붙였다고 한다. 그의 적소에서는 춘분에서 추분까지 남쪽하늘에 나타나는 노인성을 볼 수 있다하여 써붙인 글귀이다.(노인성에 대한 기록은 또 다른 유배

인 조관빈(趙觀彬)의 문집 『회현집(晦軒集)』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벽에는 '鄉而忘憂 惓惓自得'(마음의 안정으로 모든 근심을 잊으면 자연히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뜻)이라 써붙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연의 경치를 즐기려 했던 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배기간동안 그는 경치를 구경하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가 귀양을 사는 동안 문안왔던 친구에게 지어 주었다는 한시 한구절에서도 초연하라는 그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꽃잎은 푸릇푸릇 애를 끊는데/이 별가 한곡조로 그대 보내네/헤어지면서 다시 만남의 약속을 맡게/다들네 청산봉우에서 고사리캐네(고 양승필교수 역)"유배당시에 지은 많은 시들과 제자의 풍경들이 그의 문집 『한국당집』에 전하고 있다.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당대의 거유였던 그의 가르침은 지역유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예부터 창천·감산지역에 예의바른 젊은이들이 많았단 것을 그들 포함한 유배인들의 영향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유배살이가 3년을 넘을 즈음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하면서 그는 해배되게 된다. 1725년 해배의 명을 받은 그는 풍랑을 만나 5일 만에 해배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풍파에 시달리느라 해남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영조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영의정을 제수하였다고 한다.

고령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두려움없이 처벌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의 강직함은 아마 제주도민의 정신에 녹아 흐르고 있을 것이다. (진명희기자)

나 비

현방훈 <경영학과 89년 졸>

두꺼운 사슬의 굴레를 벗고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된 줄부처럼
기지개를 켜지는 마세요

지난 겨울
시리도록 파스했던 그 껍질 속 나라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관념의 굴레를 벗고
기어이 벼를 수박에 없었던 관념의 껍질
우리는 애 그 굴레를 벗어야만 하나요

하루만에 줄부가 된
그녀의 위대한 손을 믿지는 마세요

현방훈 동문 등단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통해

현방훈(경영 88년 졸)동문이 월간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10월호 시부문 신인상에 당선, 시인으로 등단했다.

월간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10월호에 실린 심사평에 따르면 「나비」 「그대들의 사랑은」 「파도」 「달맞이꽃」등 4편의 당선작은 "이미지가 반어적이며, 새타이어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다룬 시인들과는 색다른 작품경향을 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눈높이 사랑·눈높이 교육

“아침이 그날을 알려주듯
어린시절은 그의 미래를 알려준다”

—밀튼—

어린이는 내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읽습니다.
꿈과 사랑으로 어린이의 내일을 밝혀주는 일,
눈높이 교육 대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눈높이교육 대교는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푸른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키를 낮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작한 대교의 눈높이 사랑18년—
이제 대교는 눈높이 수학, 영어, 국어 등의 학습교재에서 어린이를 위한 케이블 TV 대교방송, 꿈과 환상의 엑스포과학공원, 그리고 대교 컴퓨터와 대교 출판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세계수준의 총체적 어린이 교육/

문화기업을 향한 발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눈높이 교육 / 아동문학상, 수학 영재 양성을 위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어린이 과학캠프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해 어린이 중심의 문화를 선풍하는데 노력해온 눈높이 사랑, 눈높이 교육의 대교—
앞으로도 대교는 제1의 교육 / 문화기업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앞장서 실현가능한 어린이의 기업을 되겠습니다.



어린이 방송 케이블 TV
어린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어린이
채널 대교방송에서는 학습, 교양, 오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어린이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대교출판·대교컴퓨터·대교방송·대교문화

미래 과학교육의 요람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이와 교육의 학습환경
대전 엑스포아일랜드 과학향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엑스포아일랜드

눈높이 사랑·눈높이 교육
대교
(02)528-0114

대교출판·대교컴퓨터·대교방송·대교문화·대교문화